건강이슈

제1회 세계 익사예방의 날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관리과 권상희, 황영순, 정지현, 이은해**

출처 : www.who.int/campaigns/world-drowning-prevention-day/2021

유엔은 2021년 4월 개최된 총회를 통해 매년 7월 25일을 세계 익사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세계 익사예방의 날 행사를 통해서 익사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비극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명 구조 대책을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익사를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보고 유엔 조직 중 세계보건기구가 관련 조치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익사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23만 6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1~24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요 사망원인에 포함된다. 전 세계 익사의 90% 가량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강, 호수, 우물, 가정용 물 저장 용기에서 발생하며 농촌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익사사고의 절반이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비율은 서태평양지역이 가장 높고 아프리카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에티엔 크루그(Etienne Krug) 건강사회결정요인국장은 "Anyone can drown, no one should." 즉, 누구에게나 익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도 익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첫 번째 맞는 세계 익사예방의 날의 의미를 표현하였으며, "대부분의 익사가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이번 첫 번째 세계 익사예방의 날을, 익사로 인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파트너들의 관심을 높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하였다.

세계 익사예방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 돌봄 중 익사예방이나 기본적인 수영, 물놀이 안전 기술 등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6세 미만 어린이 돌봄과 6세 이상 연령의 어린이에게 기본적인 수영 기술과 물놀이 안전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 물가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장벽 설치, △ 유아용 침대처럼 물가에서 떨어져서 취학 전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안전 장소 마련, △ 수영, 물놀이 안전, 안전 구조 기술 등에 대한 훈련, △ 안전한 구조와 심폐소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훈련, △ 배 운항 규정에서 안전 관리 기준 강화, △ 홍수 위험 관리 개선 등이다. 세계 익사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파트너들은 출범 행사를 주최하고 관련 지지 자료를 제작하여 각 국가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이 익사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익사예방에 대한 대중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며, 객관적 지표로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7월 28일 제네바 시간으로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온라인으로 "2021년 세계 익사예방의 날을 맞이하는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성찰"을 주제로 세계 익사예방의 날을 축하하고 익사를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추진력을 도출해 내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참고문헌

1. www.who.int/campaigns/world-drowning-prevention-day/2021